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중동 리스크 완화 국면, 진통은 불가피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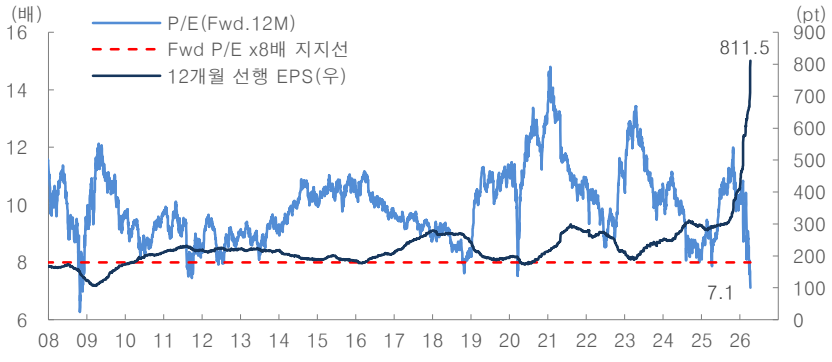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 = 비중확대 전략 &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술적 대응

- 중동 지역의 물리적 충돌은 2주일간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에 진입.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 전개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등락이 결정될 전망. 핵심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정상화 여부, 임시 휴전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미국과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협상의 조건 또한 상이하며 협상 결과 통행료 부과 현실화 등 이란의 해협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 종전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협상 과정에 따른 노이즈 불가피
- 매크로 지표 발표 일정 또한 첩첩 산중. 주말 사이 발표되는 미국 3월 CPI 컨센서스는 3.4%로 전월(2.4%) 대비 급등 예상.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솔린 등 물가에 즉각 반영된 영향. 14일 발표될 3월 PPI 또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전가와 동시에 기업들의 마진 압박 우려 확대 가능
- 통화정책 또한 변수, 16일로 보도되고 있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벤트 리스크로 작용.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적' 성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양적 긴축에 대한 매파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 현 제롬 파월 의장의 법적 기소 논란과 연준 독립성 훼손 이슈도 케빈 워시의 인준 과정에서 노이즈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 중 일부의 이탈 조짐으로 인준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농후
-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요소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 어닝시즌이 다가오면서 코스피 선행 EPS가 811.5pt까지 상향조정, 5,800선 기준으로 선행 PER은 7.12배 수준에 불과. 현재 KOSPI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선행 PER 저점인 7.4~7.6배마저 하회하는 Deep Value 구간에 위치
- 실적 전망은 상향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가와의 괴리는 확대. 그러나 매크로와 통화정책 등 대부분의 불확실성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꼬인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는 상황, 반대급부로 지정학적 충돌이 완화될 경우 빠른 반등이 가능한 이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실물경제 영향과 미-중 정상회담 일정,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5월 이전 종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향후 경기/물가 불안을 반영하더라도 KOSPI 선행 PER 7배 초반 수준에서는 등락을 활용한 적극 비중확대 유효. 전략적 관점에서 종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집중하되 협상 과정에서의 노이즈와 단기 심리변동을 활용하는 전술적 대응 권고. 그동안 언급해왔던 수출주(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와 성장주/소외주(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주가와 실적의 괴리 확대. 12개월 선행 P/E 7.1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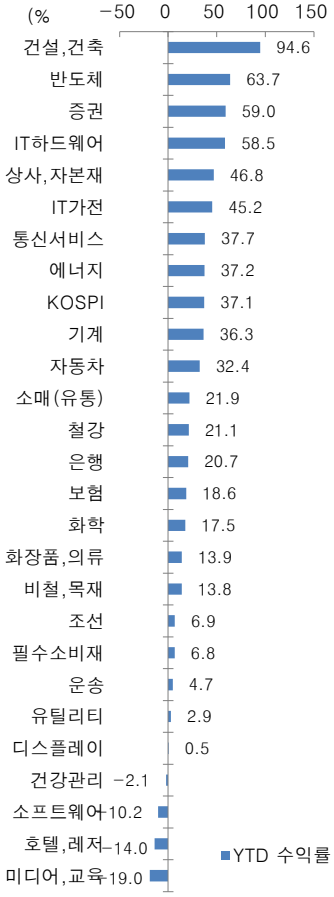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5,778	-1.6	10.4	10.0	26.0	62.8	151.9	37.1
에너지	6,539	1.4	9.2	3.1	33.1	50.8	128.2	37.2
화학	5,255	1.7	9.6	14.5	23.6	35.1	76.2	17.5
비철,목재	8,052	-2.6	5.5	-2.5	24.4	38.5	97.2	13.8
철강	2,629	1.6	8.7	9.9	22.1	31.7	48.1	21.1
건설,건축	2,960	-0.8	25.8	39.5	92.3	103.7	171.3	94.6
기계	12,211	-0.9	8.5	9.7	26.1	53.0	264.4	36.3
조선	9,319	-0.9	6.6	-4.2	-6.8	6.9	97.6	6.9
상사,자본재	5,097	-0.6	9.6	5.6	24.8	60.8	187.0	46.8
운송	1,845	-1.3	2.2	0.2	2.4	10.1	33.5	4.7
자동차	15,699	-3.3	3.6	-2.0	17.5	66.5	105.7	32.4
화장품,의류	5,587	2.3	3.8	8.5	15.5	8.1	54.2	13.9
호텔,레저	1,988	0.8	0.3	-3.3	-9.8	-12.1	22.0	-14.0
미디어,교육	639	-1.4	-2.5	-19.2	-18.0	-8.0	14.4	-19.0
소매(유통)	2,458	3.4	8.1	11.0	21.3	29.3	53.6	21.9
필수소비재	7,278	1.7	2.0	6.7	8.7	4.4	32.3	6.8
건강관리	10,360	-0.6	0.7	-0.7	-10.8	18.0	34.8	-2.1
은행	3,231	-0.5	4.7	6.6	21.2	28.3	104.3	20.7
증권	3,569	-1.4	8.8	6.4	55.6	67.5	175.0	59.0
보험	12,315	-2.1	4.2	3.1	22.8	22.8	101.6	18.6
소프트웨어	6,432	-0.3	3.0	-3.8	-12.0	-12.6	19.1	-10.2
IT하드웨어	2,172	-0.4	16.7	27.6	59.6	107.5	252.2	58.5
반도체	34,013	-3.2	16.4	18.0	41.9	137.2	344.1	63.7
IT가전	2,690	1.4	7.3	18.3	46.0	62.1	102.5	45.2
디스플레이	709	-2.4	4.9	3.6	0.2	-17.9	52.6	0.5
통신서비스	506	2.6	11.1	13.4	39.6	37.4	52.3	37.7
유틸리티	1,397	-1.1	5.0	-0.1	-0.6	25.4	84.8	2.9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7.8	15.4	16.8	3.1	2.8	3.0	17.5	18.1	17.8	1.7	3.5	▲
선진국	19.0	16.5	18.0	3.4	3.1	3.3	17.8	18.5	18.1	1.7	3.5	▲
신흥국	11.8	10.2	11.2	1.9	1.7	1.8	16.1	16.6	16.3	1.6	3.1	▲
북미	20.8	17.7	19.4	4.4	3.9	4.2	21.3	22.0	21.6	2.2	4.3	▲
유럽	14.8	13.3	14.3	2.2	2.0	2.1	14.6	15.1	14.8	0.6	2.0	▲
퍼시픽	16.1	14.6	15.8	1.7	1.6	1.7	10.8	11.2	10.9	0.6	0.7	▲
라틴	10.8	10.0	10.5	2.0	1.9	2.0	18.7	18.6	18.7	1.4	7.5	
EM 유럽	9.1	8.0	8.7	1.3	1.2	1.3	14.3	14.7	14.5	0.7	1.8	▲
EM 아시아	12.1	10.3	11.5	1.9	1.7	1.8	15.8	16.3	16.0	1.8	3.0	▲
선진 시장												
S&P 500	20.9	17.7	19.4	4.5	4.0	4.3	21.6	22.3	22.0	2.3	4.1	▲
NASDAQ	25.1	20.0	22.6	5.9	4.9	5.5	23.6	24.5	24.1	2.9	5.8	▲
프랑스	14.5	13.1	14.0	1.9	1.7	1.8	12.9	13.3	13.0	1.4	2.4	▲
독일	14.4	12.5	13.6	1.7	1.5	1.6	11.5	12.4	11.9	0.9	0.1	▲
영국	13.1	12.0	12.8	2.1	2.0	2.1	16.2	16.5	16.3	2.5	4.1	▲
일본	17.4	15.7	15.5	1.8	1.7	1.6	10.1	10.6	10.6	1.2	1.7	▲
신흥 시장												
중국	11.6	10.1	11.1	1.3	1.2	1.3	11.4	12.1	11.6	0.9	-0.8	▽
인도	18.9	16.5	18.7	2.8	2.5	2.8	14.9	15.3	15.0	1.2	0.7	▲
한국	7.0	5.9	6.6	1.6	1.3	1.5	22.7	21.5	22.2	5.0	15.6	▲
대만	18.5	15.0	17.2	3.8	3.3	3.7	20.6	22.2	21.3	2.4	3.6	▲
브라질	9.6	8.9	9.4	1.9	1.7	1.8	19.6	19.2	19.5	1.0	9.7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6.8		○			●					
선진국	18.0		○			●					
신흥국	11.2		○	●							
북미	19.4	○				●					
유럽	14.3						○ ●				
퍼시픽	15.8						○	●			
라틴	10.5								○	●	
EM 유럽	8.7								○	●	
EM 아시아	11.5	○		●							
S&P 500	19.4	○				●					
NASDAQ	22.6	○	●								
프랑스	14.0				○	●					
독일	13.6					○		●			
영국	12.8							○	●		
일본	15.5						○	●			
중국	11.1						○ ●				
인도	18.7	○ ●									
한국	6.6	○ ●									
대만	17.2						○	●			
브라질	9.4								○	●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20.2	15.4	11.7	13.6
	선진국	17.0	15.3	11.9	13.6
	신흥국	38.9	15.9	10.7	13.3
권역(소)	북미	18.7	17.2	12.8	15.0
	유럽	14.2	11.5	10.6	11.1
	퍼시픽	11.4	10.2	8.3	9.3
	라틴	21.3	7.7	8.0	7.9
	EM 유럽	19.0	13.7	9.9	11.8
	EM 아시아	44.9	17.5	11.4	14.5
선진국	S&P 500	18.4	17.8	12.8	15.3
	NASDAQ	36.8	25.3	16.6	21.0
	프랑스	17.9	10.1	10.0	10.0
	독일	10.4	15.7	12.9	14.3
	영국	12.3	9.6	9.8	9.7
	일본	9.6	11.0	11.9	11.5
신흥국	중국	13.5	15.1	12.0	13.5
	인도	17.7	15.0	13.2	14.1
	한국	161.0	18.8	5.5	12.2
	유럽	14.2	11.5	10.6	11.1
	브라질	27.6	7.1	8.8	7.9

기준일: 2026.03.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